

취 없는 양계장을 만듭시다.

동작이 민첩하고 약삭빠른 아이를 이름하여 생취같은 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취란 놀이 인간의 한 주먹뿐이 안되는 조그만 동물이지만 잡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어느 양계잡지에서 양계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취가 먹는 사료량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번식력에 관한 기사를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료비가 전체 양계경영비의 79~90%를 차지하고 또한 이 사료의 70~80%를 귀중한 의화를 써서 수입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계 실정이고 보면 취잡기 캠페인은 제일먼저 우리 양계업을 하는 분들 부터 벌려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어느양계장에 가 보아도 취는 배불리 먹고 뛰어노는데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지방에선 비교적 세밀히 잘 설계된 적의 집 계사지만 취는 이루말할 수 없이 대군(大群)이 살고 있습니다. 각 계사마다 스퀘트지붕의 처마 밑이나 창문틈을 막아보지만 취는 어느 구멍으로 어떻게던지 계사로 들어 갑니다. 취약을 투여해 보지만 고작 계사 밖에 나와 있는 몇마리 정도만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 10일 전 부터 원시적이긴 합니다만 뽀족한 창을 만들어 취를 찔러서 잡기

시작한 것이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계사내에 서식하고 있는 취는 의외로 동작이 완만하여 후라쉬를 비추면 잠시 머뭇거리는데 이때 창으로 찍으면 아주손쉽게 잡히곤 하여 수면중인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위해 하루에 30분 정도 난상이나 스노크 밀을 비취가며 잡은 것이 하루 평균 30마리 이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취는 주로 밤에는 계사내의 자동급이기 속에 들어가 사료를 먹다가 인기척이 나면 종계사인 우리집의 경우 모두 스노크 밀이나 난상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뽀족한 창 날이 2~3개가 달린 창으로 숨어있는 취의 등이나 머리를 찍으면 잘 잡힙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녁식사후에 잠간씩 운동삼아 잡아온 것이 우리양계장에서는 그렇게 많던 취가 찾아 보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잡은 이 많은 취들은 양계장 경영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의화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라고 생각할 때 커다란 보람을 느낍니다.

적의 이 조그만 방법이 다른 양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창양계센터

정 비 호